


고요하고
프랑크하게
그대의
기쁨
기쁨이리라

티베트 사자의
서점에서
새터  이상현 씀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당신은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Do you
have
a dream?

우리네
아버지들
세대에게
꿈이란

서울의 한 지하철 앞 작은 공원. 어르신들이 무리지어 가을별을 즐기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담소를 즐기고 있다. 그들은 한쪽 무리에서는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낸다. 대략 70대 중반쯤 될까. '노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기에는 여전히 정정하고 건강하다. 하루 종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 그들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느즈막이 자리를 뜬다. 내일도 그들은 그곳에 모일 것이다.

누구나 늙어감을 피할 수 없지만 '노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은 심란하다. 그들의 처진 어깨 뒤로 반짝반짝 빛나는 꿈을 짐작해 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모습이 어쩐지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자신의 모습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왠지 모르게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한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우리네 아버지들 세대는 노년에 대해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꿈에 대한 화두를 던진 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젊어지고 걸어온 평생의 꿈은 단지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리는 일이었다.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그들에게 꿈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와 같았을 것이다.



꿈을 설계하기 가장 좋은 때는 퇴직 전 10년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 없노라고...’

지난해 세상을 등진 한 가수는 우리에게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 앞의 생이 끝날 때’까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못다 이룬 꿈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후회로 남는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 이루고 싶은 꿈조차 없던 삶이었다며 생의 마지막 날은 얼마나 공허할까.

‘평온한 노년준비’의 저자 호사카 다카시는 40대 후반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 후로 매년 정월 초하루 자신의 무덤에 참배하며 지난 일 년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지 설계해 보는 기회로 삼았다. 그는 무덤을 만든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시작한 노년 준비의 첫걸음’이었다고 술회하며, 퇴직 전 10년이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저자의 말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퇴직 전 10년이 인생 2막에 대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이다.

평생의 꿈에서 시작된 타샤 튜터의 ‘비밀의 정원’

“인생은 결코 긴 게 아니에요. 우물쭈물 멍하게 있다 보면 어느새 인생은 끝나버리지요. 내키지 않는 일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것이에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타샤 튜터’가 한 말이다. 미국 북동부 버몬트 주의 산골마을 농가에서 정원을 가꾸며 자급자족했던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대로 인생을 끌고 갔고, 나이 70살이 되었을 때는 그 꿈이 빛을 보았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는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어린 시절은 부모의 이혼으로 외롭게 자랐고, 결혼 후에는 도시 출신인 남편과 이혼해 4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며 살았다. 생계를 위해 그림동화를 그리며 살아온 그녀는, 책이 팔릴 때마다 조금씩 인세를 모으기 시작한다.

나이 들수록 꿈을 가져야 장수

그리고 58세 되든 해, 버려진 농가 30만평을 사들여 평생의 꿈이었던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다. 그렇게 땀 흘려 땅을 가꾸기를 10여년. 사람들에게 정원을 공개한 것은 그녀의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였다. 그때부터 타샤 튜터의 정원은 ‘비밀의 정원’이라 불리며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명소가 되었다.

92살의 나이로 죽기 전까지도 손수 정원을 가꾸고 그림을 그렸던 타샤 튜터는 노년의 열정을 꿈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타샤 튜터를 보면 꿈은 나이나 주변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있는 것 같다. 자신이 꿈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캐나다 켈턴대학교 연구팀이 6,000명의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실험참가자들의 향후 14년 간의 삶을 추적해 그들 중 9%가 사망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사망자들의 과거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그들 중 상당수가 생존 당시 주변 사람들과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인생의 목표 역시 불투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실험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사망 위험률이 낮았다.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 등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부 한결같은 결과를 보였다. 나이와 무관하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기 사망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학창 시절, 꿈이라는 단어는 일기장을 장식하던 단골 주제였다. 우리는 꿈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고, 꿈꾸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꿈이 있기에 행복했다.

지금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당신이라면 꿈을 리셋 해보자. 허황된 꿈이라도 어떠한가. 꿈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다면 꿈은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11월호 vol.11
MONTHLY MAGAZINE, NOVEMBER 2015



08 행복을 주는 사람 | 윤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40여 년 간 식품영양을 연구한 윤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건강을 위한 바른 밥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바로 일산 마두역에 'IN MY KITCHEN'이라는 한식당을 오픈한 것. 한식의 세계화, 연구하는 식당, 바른 먹거리 실현 등 개척자의 길을 자처해 열정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녀와의 맛있는 대화를 소개한다.



18 지식프리자 - 세무 | 금융자산을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전략이 최선

최근 국세 동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탈세제도, 차명계좌 신고제도 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 동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절세 전략을 세워보자.



24 Anti Aging | 면역력 높이는 체온 1°C의 비밀

당신은 뜨거운 사람입니까? 차가운 사람입니까? 성인의 가장 적정 체온은 36.8도. 하지만 최근 현대인들은 36.5도를 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저체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우리 몸,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당신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 줄 체온에 대한 모든 것.



34 경제 이슈 | 신흥국 경제에 드리운 세 가지 불안 요소

내년에도 신흥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미(美) 연준의 출구전략발(發) 충격 가능성,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성장을 둔화, 신흥국의 부채위기 등 신흥국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요소들을 살펴본다.

OPENING

- 01 **행복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인생 2막, 바른 밥상으로 대중과 소통하다

INFO GRAPHY

-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귀농 귀촌 현황

행복미래설계

- 14 **H씨의 행복설계**
자산포트폴리오 재조정, 금융투자 관심 확대로 선.제.적 노후 준비
- 18 **지식 프리자 - 세무**
금융자산을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최선
- 20 **지식 프리자 - 상품소개**
여성만을 위한 연금보험
- 22 **Do! Dream**
내 삶의 설레임을 되찾다! 유망 자격증
- 24 **Anti aging**
면역력 높이는 체온 1°C의 비밀
- 26 **Alone, together**
반려동물 예찬

연금이슈포커스

- 28 **연금 포커스**
은퇴 후 재취업 동향과 성공적인 취업 전략
- 34 **경제 이슈**
신흥국 경제에 드리운 세 가지 불안 요소
- 38 **부동산 이슈**
정부 주거안정대책, 과연 효과는?

경제 TREND

GLOBAL

- 42 **지구인 이야기**
스마트한 네덜란드 시니어

FUTURE

- 44 **은퇴, 버킷리스트**
글로벌하게 나눈다! 해외봉사활동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11월호 vol.11 (통권 11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통례번호 영등포, 리00424 통독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행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행일 2015년 11월 5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김상환 연구위원, 박지홍 연구원, KEB하나은행 | 이종면 팀장, 최호재 팀장, 김홍균 팀장,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재력 및 기획 특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윤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인생 2막, 바른 밥상으로 대중과 소통하다

40여 년 간 식품영양을 연구한 윤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건강을 위한 바른 밥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바로 일산 마두역에 'IN MY KITCHEN'이라는 한식당을 오픈한 것. 인생 2막에 새로운 도전을 감행한 윤 교수에게 “당신은 언제 행복한가요?”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이에 그녀가 답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한식의 세계화, 연구하는 식당, 바른 먹거리 실현 등 개척자의 길을 자처해 열정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녀와의 맛있는 대화를 소개한다.

“현대인들은 가공식품과 외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고당질·고지방·고염식에 대한 대사성 증후군과 영양불균형이 급증하고 있죠.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고민하던 중 맛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한식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윤선 교수의 인생 2막은 시작됐다.

가을비가 주절주절 내리던 10월의 어느 날. 윤 교수가 오픈한 일산의 식당을 찾았다.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와 정갈한 소품들로 꾸며진 맛있는 공간, 인마이키친(IN MY KITCHEN).

분주한 점심 타임을 마무리 한 후 윤 교수와 식당 구성원들이 모여 브레인스토밍이 한창이다. 연구하는 식당의 롤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윤 교수의 꿈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손맛의 하우(How)와 과학의 와이(Why)가 조화를 이뤄야 해요. 인마이키친이 손맛과 과학이 결합된 바른 밥상 연구소인 셈이죠.”

그녀는 요리는 과학이라고 강조한다. “손맛을 강조하는 한국 음식에는 과학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영양학자로서, 개척자로서 인터뷰 내내 보여준 결연한 의지는 숙연함마저 느껴진다.





식생활관리전문회사, 공동 부업에서 한식당 인마이키친까지

사실 윤 교수는 식당 오픈 전 까지 '식생활관리전문회사'와 '공동 부업'을 계획했었다.

“가족의 구성원, 예산, 기호 등 개별적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메뉴를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식생활관리전문회사를 실현해보고 싶었어요. 또 생활 공동공간에서 부업 커뮤니티를 만들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연구하고 나누는 시스템을 시도해보고 싶었죠.”

일상이 연구의 연속인 윤 교수는 결국 다양한 시도 끝에 한식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도전한 것이 한식당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필요한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또 식품영양학은 대중과 만나야 의미 있는 학문이에요. 인마이키친을 성공시켜 후배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싶어요.”

열정의 비결은 사회적 책임감

가냘픈 체구에 선한 웃음이 윤 교수의 인상적인 첫 모습이다. 하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어느새 먹거리 연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꽉 채워진 개척자의 단호함과 강인함이 상대를 압도한다. 그녀가 가진 열정의 비결이 궁금해졌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새로운 시도는 저에게 에너지를 줘요. 또 전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요. 예를 들어 배추농사가 잘 되지 않아 버려지는 배추를 보면 제 잘못된 것 같아 책임감으로 힘들어하죠. 어쩌면 이것이 도전하고 뚝 수 있도록 부추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는 식품영양학의 롤 모델이 없어요. 후배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도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생각하면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윤 교수의 남다른 사회적 책임감 뒤에는 두 분의 스승이 영향을 미쳤다. “연세대 최이수 교수님과 이기열 교수님이예요. 제가 처음 대학 입학 당시 ‘여성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여성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자세, 가치관 등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요즘 창의성에 대해 많이 얘기합니다. 창의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오지랖이 넓어야 해요. 다양한 것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오지랖을 뜻하죠. 또 호기심이 많아야 해요. 세상과 삶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면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오지랖 넓고 호기심 많은 분들을 보면 얼굴 표정에서부터 달라요. ”



먹거리가 주는 행복

누구나 한 번쯤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맛있는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윤 교수는 말한다.

“먹거리는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줍니다. 또 좋은 재료, 정성들여서 만든 음식을 잘 먹고 자란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아요. 먹거리가 중요한 이유죠.” 먹거리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한다는 윤 교수. 정작 그는 과연 언제 행복할까.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행복한 것 같아요. 연구하는 과정이 저에겐 행복이에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연구를 위해 식당을 오픈했고, 다양한 도전을 해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연구개발(R&D)을 하는 식당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개척자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그 과정이 저에겐 행복이에요.”

오지랖 넓히고, 호기심 키워라

매일 매일이 도전의 연속인 그녀에게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부탁했다. “요즘 창의성에 대해 많이 얘기합니다. 창의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오지랖이 넓어야 해요. 다양한 것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오지랖을 뜻하죠. 또 호기심이 많아야 해요. 세상과 삶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면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오지랖 넓고 호기심 많은 분들을 보면 얼굴 표정에서부터 달라요.” 마지막으로 윤 교수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었다.

“요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에요. 특히 사람들이 간편하게 한국의 맛, 건강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떡 연구도 개발하고 있는 데 상품화해 유통시키고 싶은 계획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먹거리로 인해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윤 교수의 선험자로서 감행한 진정성 어린 도전은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귀농 귀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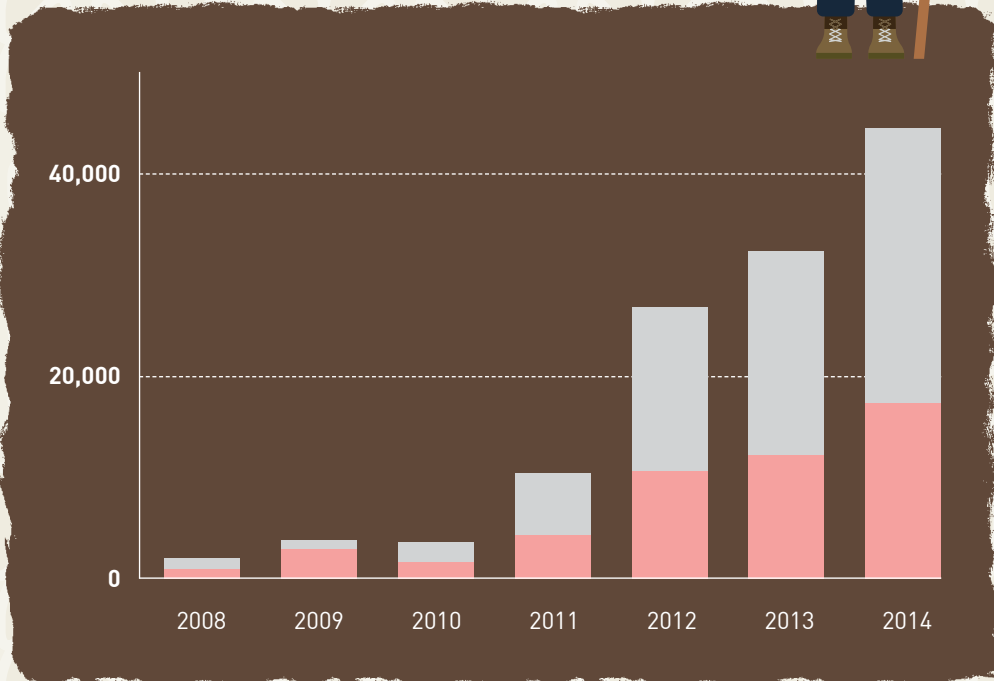
2014년 귀농 귀촌이 4만 4,000가구를 넘어서며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01. 총 귀농 귀촌 가구 추이

단위 : 가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50대 이상
- 40대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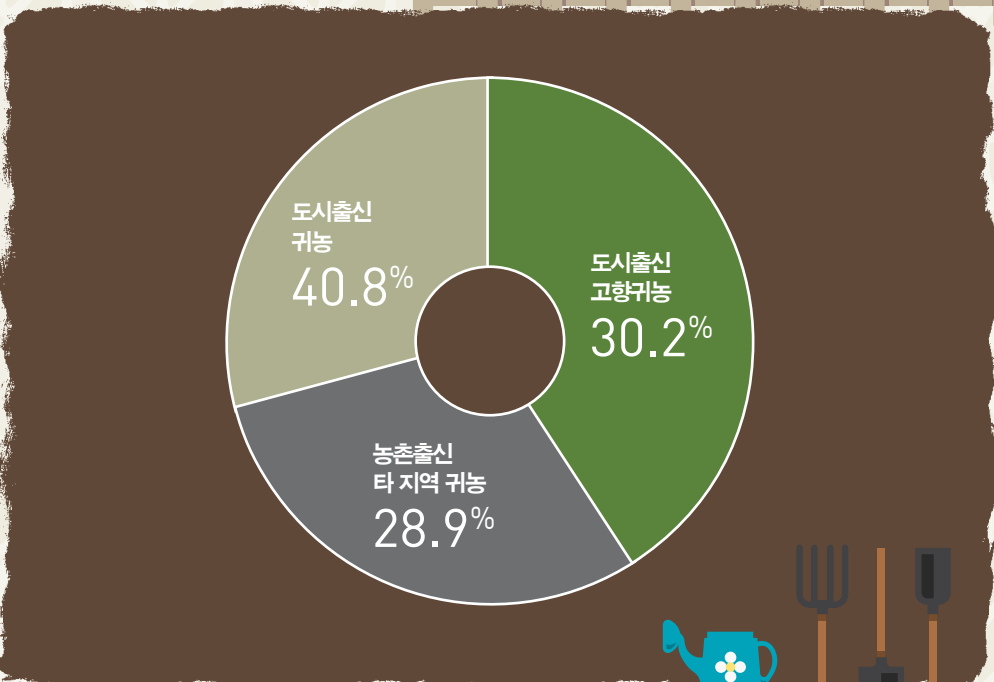
03. 귀농 귀촌 이유

단위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 2014년 조사기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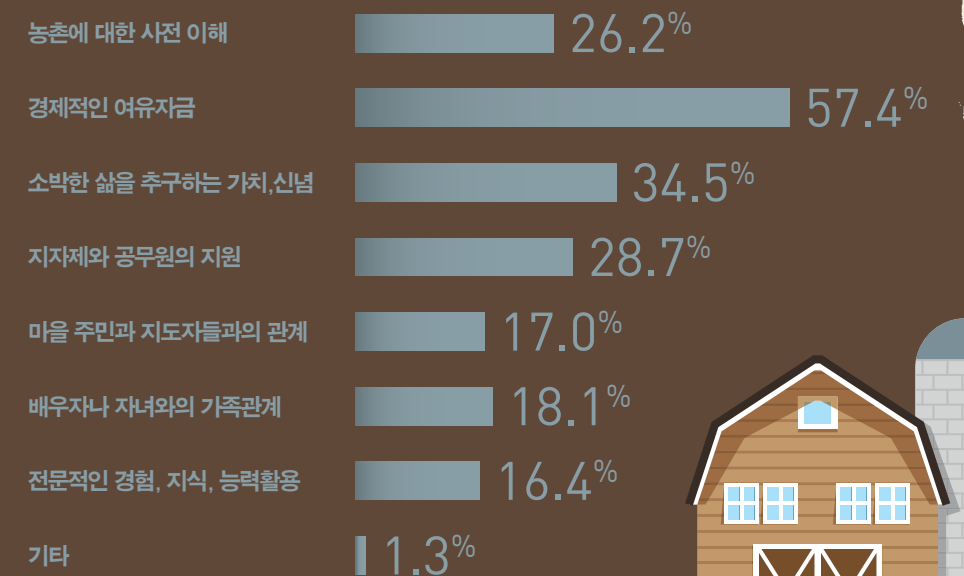
02. 귀농 귀촌 유형

단위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04. 귀농 귀촌 정착에 있어 중요요인

단위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 2014년 조사기준, 복수응답



자산포트폴리오 재조정, 금융투자 관심 확대로 선제적 노후준비

자영업에 종사하는 H씨.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H씨의 사업소득은

월 700만원으로 높은 편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많아 현재 생활은

물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예상된다.

다만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상속 부분에서는 적절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다.

H씨의 불안을 잠재울 현명한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방안은 무엇일까?



보유자산 및 소득은 많은 편이나

향후 자녀들에게 들어갈 비용으로 인해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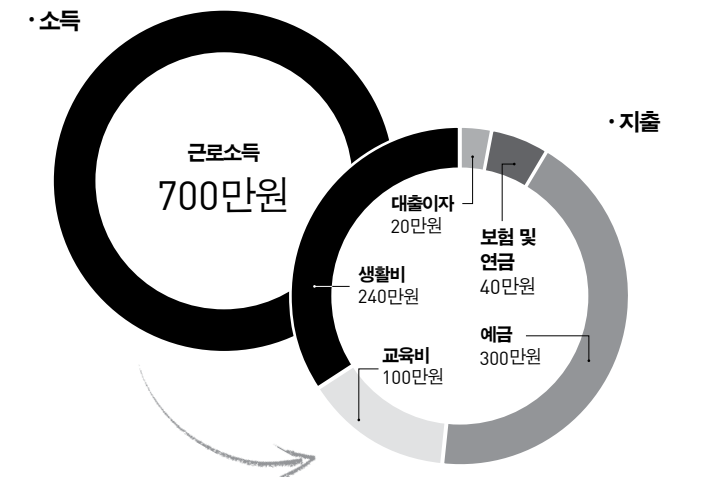
자영업에 종사하는 H씨(만 50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고등학교 1학년생, 중학교 2학년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현재 H씨는 부동산 자산으로 약 4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예금 8,000만원, 펀드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채로는 아파트 구입 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이 남아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으로 월 7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생활비 240만원, 교육비 100만원, 보험 및 국민연금 40만원(각각 20만원)이 있으며, 나머지 300만원은 단기에예금에 예치해두고 있다.

H씨는 사업소득이 높은 편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많아 현재 생활은 물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자녀들의 교육비(1인당 7,000만원 예상)와 미래 자녀들의 결혼비용(1인당 1억 원 예상), 자녀 상속, 다소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노후 준비 등을 생각하면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고민이 생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4억 원
	상가	4억 원
	예금	8,000만 원
	펀드	3,000만 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5,000 만 원
· 순자산		7억 4,700만 원



60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250만원을 원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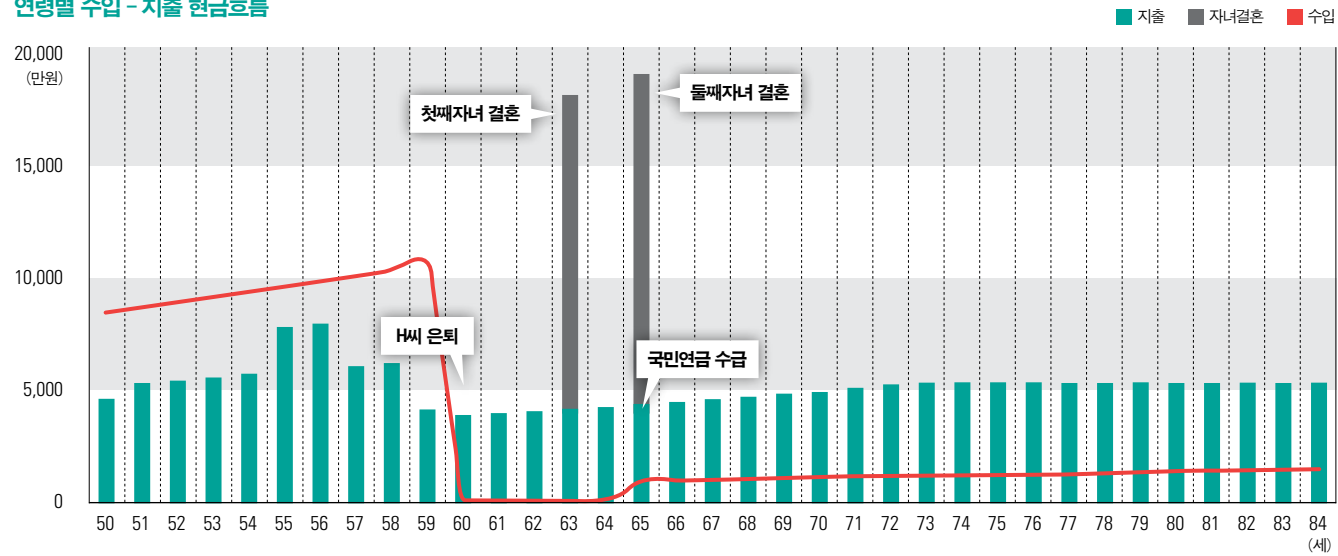
H씨는 은퇴시기를 6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85세까지의 미래설계를 원한다. 현재 H씨는 생활비로 24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현재 수준과 유사한 2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매월 20만원씩 불입하고 있으며, 65세부터 매월 약 56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씨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¹⁾을 살펴보면, 은퇴 전까지는 지속적인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 전까지 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이며, 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퇴 직후에는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생활비 대비 크게 모자라 지속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자녀의 결혼비용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까지도 일부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보면 50세부터 은퇴 전인 59세까지 약 3억 2,000만원의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반면, 60세부터 85세까지 7억 7,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해 총 4억 5,00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하고 수입은 근로소득과 연금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연령별 수입 - 지출 현금흐름



금융자산 및 부채 재조정,
부동산자산의 금융자산화가 요구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H씨가 첫 번째로 할 일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재조정이다. 예금과 펀드 등 현금성자산이 충분함에도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담보대출 5,000만원을 예금 및 펀드로 상환해 불필요한 이자 납입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담보대출 상환 후 남은 현금자산 6,000만원과 매월 발생하는 300만원 규모의 잉여 자금을 7.92%의 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 노후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부동산 자산(아파트와 상가)을 모두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7.92%의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추구형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 운용으로는 다소 위험 부담이 큰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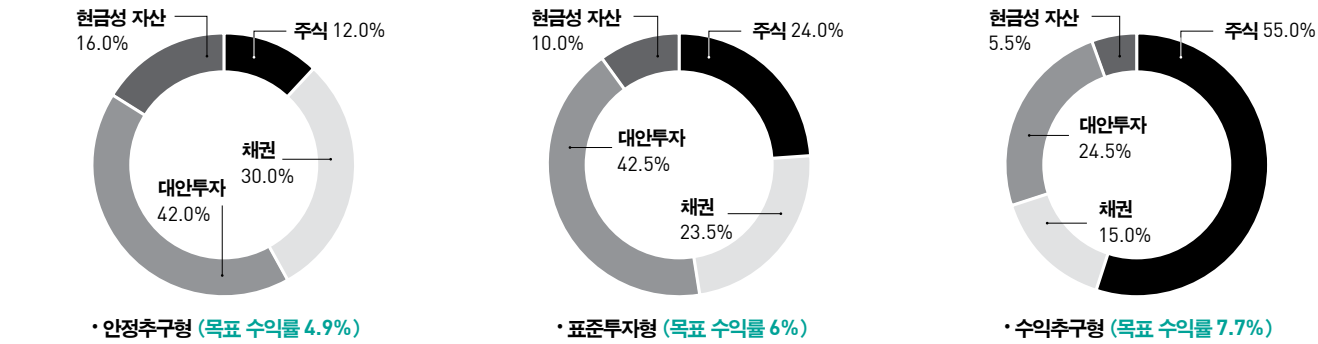
따라서 다소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요구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녀 상속액이 다소 감액되더라도 부동산 자산을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의 경우 거주 목적이 있으므로 향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상가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한다. 매각 시기는 유동적이나 본 분석에서는 은퇴 시기인 60세에 상가를 매각하는 것을 가정한다.

위와 같이 부동산 자산을 활용할 경우 3.59%의 수익률로 금융자산을 운용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3.59%의 수익률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투자 유형인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의 수익률(4.9%)보다 낮은 수익률이다. 그동안 H씨가 안정적인 금융자산 운용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이상적인 투자 형태로 생각된다.

만약 H씨가 부동산 자산을 금융자산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자녀 교육비, 노후 생활비 등을 다소 감액하여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 교육비를 1인당 5,0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노후 생활비 또한 200만원 수준으로 낮출 경우 5.51%의 수익률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51%의 수익률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이며, H씨가 이를 감안할 수 있다면 위의 시나리오도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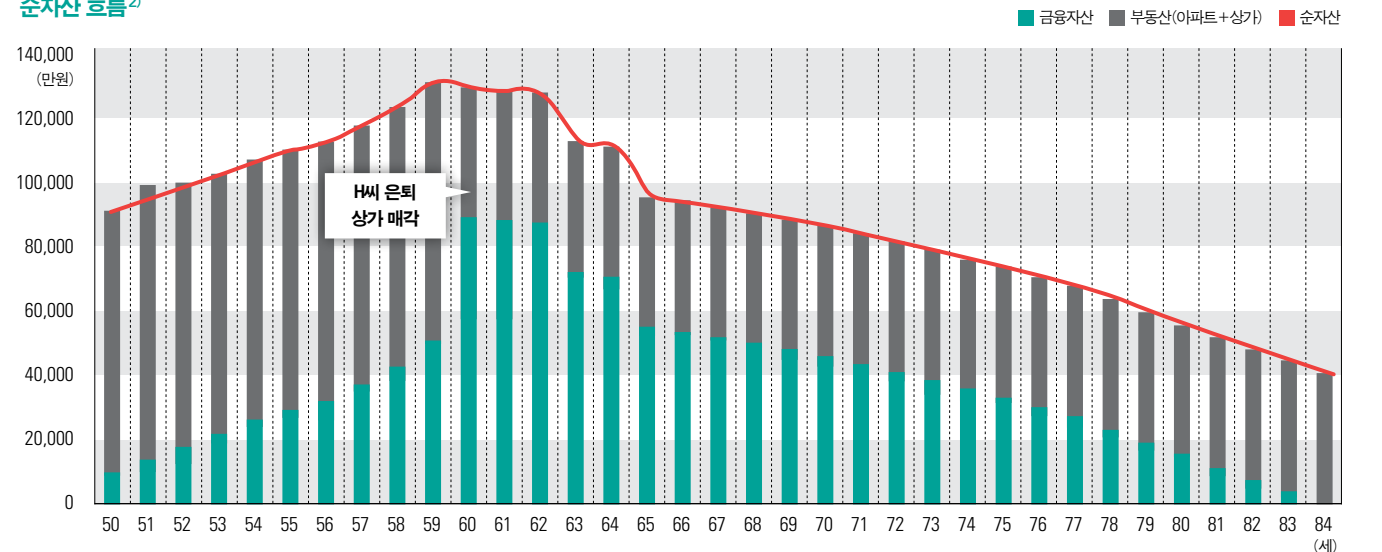
원활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금융자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

H씨는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며, 수입 대비 지출이 적어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연금이 없다는 점,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생활비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한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용에 임하거나 또는 보

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일부 현금화해 노후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독자들 중에서도 H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현금흐름이 좋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안심하기보다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확인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자산 흐름²⁾



2) 위 순자산 흐름도는 상가를 매각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며, 자녀들에게는 아파트를 상속해주는 것을 가정한 것

최근 국세 동향과 개인사업자의 절세 전략

금융자산을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최선



최근 국세 동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제도 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 동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절세 전략을 세워보자.

2010년 이후 국세 동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이다. 탈세제보란 탈세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과 그 탈세자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에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탈세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일정 금액의 추정세액이 발생하면 제보자에게 일정 비율에 대한 포상금(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에는 연일 수많은 제보가 들어온다. 그 중 상당수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 의한 제보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업주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큰 변화는 차명계좌 신고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차명계좌 신고란 사업주가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해 타인 계좌로 이체 받았을 때, 그 이체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타인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 추정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연간 5,0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기타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등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제보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란?

다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이때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가공경비 방지를 위한 적격증빙 수취확인, 접대비·차량유지비·복리후생비 등에 개인적 경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증하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가공경비 등을 누락시키는 등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2010년 이후 가장 변화된 것이 바로 사업자의 세무 환경이다. 따라서 절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세금을 안낼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벌어 놓은 소득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세금 없이 운용할까를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로 인해 몇 년 동안 아꼈다고 생각하는 세금이 일시에 증발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은?

개인사업자란 대표자가 사업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1~24.2%(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41.8%(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41.8%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은?

① 금융상품을 활용한 사업소득 절세 전략

개인사업자가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위해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을 들 수 있다.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가입시점에 사업소득의 경비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금 지급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금융기관으로 예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사업이 상승국면에 있어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퇴직연금 가입 시 최고 납입금액의 41.8%의 세금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규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상품이 될 것이다.

② 금융상품을 활용한 소득 운용 측면에서 절세 전략

세제적격연금보험 가입도 권장한다. 세제적격연금상품의 경우 최고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연간 400만원의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52만 8,000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두 번째,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 가입을 추천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으로는 주식형 펀드가 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대부분의 운용자산이 주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금액이 거의 없다. 세 번째, 비과세저축성 보험의 가입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 보험의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산업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사업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품 이외에도 비과세나 분리과세(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 과세종결)금융상품이 많으므로 적합한 상품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면 자산 증식과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적격연금상품, 최고 400만원한도 13.2% 세액공제

여성만을 위한 연금보험

국내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층의 여성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에 비해 7~8년 정도 길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성의 수명증가로 인해 고령층의 여성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의 경우 2014년 기준 여성의 가입률은 42.1%로 남성의 가입률 57.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공·사적연금의 수급액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남성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여성들이 홀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원하는 여성만을 위한 연금보험이 출시되어 있다.

여성전용연금보험은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망이나 수술 등 건강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연금지급을 주 계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행자금을 지원한다거나 배우자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삼성생명의 '무배당 여성행복연금보험', 동양생명의 '무배당 수호천사 행복한여자사랑연금보험' 등이 있다. 이들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만이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최소 만 1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최대는 75세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기간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주보험을 구분해 지급을 달리하고 있다. 연금개시 전에는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의료비 등이 지급되고, 연금개시 후에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신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여성만을 위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여성전용연금보험을 이용해 볼 만하다. 그렇지만 모든 상품이 다 그러하듯이 이들 보험의 경우도 주보험의 내용, 연금의 지급조건 등 각 조건이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잘 따져 보고 가입해야 한다.

여성 전용 연금보험 내용

구분	여성행복연금보험	무배당수호천사 행복한 여자사랑연금보험
보험사	삼성생명	동양생명
연금지급	- 종신 연금형 등 다양한 형태로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지급 - 연금액 일부 선 지급 가능	-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를 통해 행복설계 자금 지급 - 적립액의 70%까지 지급
주보험금	- 사망보험금, 재해장애보험금, 자기관리자금, 생존연금	- 연금개시 전 : 생활자금, 수술·입원비 - 연금개시 후 : 행복설계 자금, 연금
주요특징	- 여행자금 지급, 아내사랑 보장특약 가입 시 배우자 사망의 경우도 특약 가입액의 1%를 잔여특약보험기간 지급	- 최고 100세까지 보증지급기간 선택 가능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 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대한민국 1등 은행
KEB 하나은행

국내은행 중 자산규모 1위(2019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1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17개 항목만 이체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2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예금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1st.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사결과 2015-광고-3054(2015.09.30)

내 삶의 설레임을 되찾다! 유망 자격증

지금까지 힘겹게 달려온 인생!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은퇴 후 경제적 수입과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신나는 도전, 자격증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자신의 경험과 적성을 고려한 나만의 자격증은 경제적 수입뿐 아니라 두근두근 가슴 뛰는 설레임을 선물한다. 자격증으로 신나는 일상을 만들기.

은퇴 직후 '뭐하고 살지?'라는 고민에 빠진 시니어들이 많다. 보다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두근두근 가슴 뛰는 아침을 선물하는 유망 자격증에 기회가 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인생의 전환기를 슬기롭게 통과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격증! 그렇다고 무작정 도전하는 것은 금물.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자격증을 따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살리고 전망과 회소성을 고려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문화관광 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지를 방문한 방문객의 이해와, 감상 및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역사, 문화, 예술, 자연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한다.
자격증 •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양성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실내건축 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로 유니버설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도전해보자. 유니버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기존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역할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더한 것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사용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디자인 개념이다.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적절한 실무경력이 쌓이면 실내건축 산업기사나 실내건축기사 등 상위 자격에도 도전할 수 있다.



경영 지도사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살리려면 경영 지도사도 추천할만하다. 중소기업에 경영 컨설팅과 인사·재무·세무·노무·유통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진단과 지도,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 자격증이다. 취득한 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다. 자격은 제한이 없다.



한식조리 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는 주로 여성 시니어들에게 인기 있는 자격증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일반 요식업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령 제한이 덜하고 취업 성공률도 다른 자격증에 비해 높아 인기가 높다.
자격증 •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한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시험 일정은 매월 상시 시험이 있다.



반려동물 관리사

반려동물 매니아라면 반려동물 매니저에 도전해보자. 반려동물매니저는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학습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주인을 대신해 개를 산책시켜 주는 '도그워크'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새로운 일거리도 창출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분야이다.
자격증 •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한다. 반려동물 관리사와 반려동물장례지도사도 관심이 높다.



숲 해설가

곤충, 꽃, 들꽃 등 자연에 관심이 많다면 숲해설가는 어떨까.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자격증이다.
자격증 • 산림청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 받는다. 평균 30시간 교육을 받게 된다. 숲해설가 초급 자격증을 받으려면 전문 과정까지 마쳐야 한다. 교육기관에는 숲 연구소, 충북숲해설가협회, 한국숲해설가협회 등이 있다.

면역력 높이는 체온 1°C의 비밀

당신은 뜨거운 사람입니까? 차가운 사람입니까?

성인의 가장 적정 체온은 36.5도.

하지만 최근 현대인들은 36.5도를 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저체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우리 몸,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당신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 줄 체온에 대한 모든 것.

우리는 지금 저체온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는 저체온을 부추긴다. 문제는 면역력. 차가워진 몸은 면역력을 위협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약해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6배로 강해진다. 정상 체온에서 1.5°C만 떨어져도 암세포가 번식하기 쉬운 몸 상태가 될 정도로 인체는 온도에 민감하다. 전문가들은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혈압도 올라간다”며 “뇌경색과 심근경색 등의 혈전증, 담석과 요로결석 등의 ‘덩어리’를 만드는 질환도 쉽게 발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체온 저하는 우리 몸의 노폐물이 연소되고 배설되는 것을 방해한다. 정신질환도 예외는 아니다. 우울증, 신경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체온(냉증)과 관련이 깊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싶다면 ‘따뜻한 몸’에 투자해보자. 체온1도씨는 면역력을 5~6배로 강화시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낸다. 우선 체온 상승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운동이다. 특히 우리 몸에서 체온의 40%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근육. 땀이 날 정도의 근육 운동은 체온 1도씨를 상승시킨다. 결국 ‘하루 한 번 땀 빼기’만 제대로 실천해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즐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몸의 온도를 높이는 Life Style

• 입욕으로 차가운 몸과 마음을 다스려라 •

38~41도의 미지근한 물은 20~30분,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10분 이내로 입욕시간을 유지해주면 좋다.

• 근육운동으로 체온을 높여라 •

근육은 체열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곳이다. 특히 하반신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장 손쉬운 근육운동 방법은 걷기다.

• 소식(小食)을 하라 •

몸을 차게 하는 요인의 하나는 ‘과식’이다. 배가 조금 고플 정도로 소식하는 것이 좋다.

• 열정으로 몸의 체온을 높여라 •

삶에 대한 열정, 긍정적인 자세는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인다.

• 꼭꼭 씹어야 체온이 오른다 •

좌우 턱을 고르게 사용해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저작운동은 체온을 상승시킨다. 음식은 30회 정도 씹고, 식사 시간 20~30분을 지키는 것이 좋다.

따뜻한 기운을 복돋워주는 Food

생강, 대추, 계피, 마늘, 미나리, 찹쌀, 유자, 겨자, 밤, 호두, 소금, 부추, 무, 파, 단호박 등

• 차가운 식품 •

- 베이글, 샌드위치 등 빵류
- 요구르트
- 바나나, 망고 등의 열대과일
- 파스타, 국수 등의 면 요리
- 커피
- 제로 칼로리 음료
- 아이스크림, 빙과류

VS

• 따뜻한 식품 •

- 밥, 떡 등의 쌀요리
- 생선
- 스프 또는 국
- 쇠고기, 양고기 등의 붉은 살코기
- 김치
- 고구마, 감자 등의 뿌리채소류
- 초콜릿

참고도서 : 체온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이시하라 유미/에인

반려동물 예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하치 이야기'

대학교수인 파커(리처드 기어)는 퇴근길 기차역 플랫폼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온다. 아내는 반대했지만 어린 하치를 끔찍이 아끼는 파커 교수를 보고 받아들인다. 일본의 아키타현인 하치는 매일 아침 파커 교수를 따라 출근길에 기차역까지 배웅하고 저녁 퇴근 시간인 오후 5시가 되면 기차역 앞 공원까지 마중 나가 주인을 기다린다. 하지만 파커 교수가 강의 도중 쓰러져 세상을 떠나자 하치는 오지 않는 주인을 매일같이 기다리며 무려 9년 넘게 오후 5시만 되면 기차역 앞에서 모습을 나타낸다. 하치는 눈 내리는 겨울밤, 주인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잠든다.

영화 '하치 이야기'의 내용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혹은 반려동물에 대해 반감이 있는 사람도 '하치 이야기'의 감동은 체감도 있게 다가온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다.

정신적·육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실제로 그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심장질환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들 53명을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반려동물을 양육하던 환자는 5.7%가 사망한 반면, 반려동물이 없는 환자는 28.2%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노인과 양육하지 않은 노인들의 병원 방문 빈도에도 차이를 보인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노인들의 병원 방문 빈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16%, 특히 개를 양육하는 노인들은 21%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통해 건강해지는 과정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려동물을 통해 건강해지는 과정은 이렇다. 만약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겠다고 결정하면 개집, 화장실, 밥그릇, 목줄, 사료, 개껌, 옷 등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진다. 입양한 개가 아직 새끼라면 화장실 사용법을 가르치느라 몇날 며칠 신경이 곤두서야 한다. 밥 먹는 모습이나 애교 있는 모습, 주인에게 꼬리를 사랑거리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터지곤 한다.

산책 중 배변하는 습관을 들여 주기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함께 산책길에 나서야 한다. 산책길에서 만난 다른 반려견들이 눈에 들어오면, 마치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반려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반려견이 길에서 똥이라도 싸면 쪼그리고 앉아 휴지로 치우고 봉지에 담은 과정에서 느슨해졌던 공공 에티켓에 대한 개념이 살아나고, 강아지가 점점 성견이 되면 녀석의 힘을 조절할 수도 있어야 한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 운동이다. 개와의 스킨십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득이다. 굳이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입양 전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있어야

물론 갖가지 연구결과가 모든 개인에 해당되며 절대적인 수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인적 관계가 줄어드는 노년의 시기에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필수적인 사회적 접촉을 제공해준다는 의미에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단, 반려동물을 마치 장난감이나 액세서리가 아닌 하나의 생명이므로 입양할 당시부터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종별 특이성, 성격 등이 함께 살 자신의 생활환경이나 성격에 맞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반려동물의 삶의 질이 피폐해진다. 만약 그 결과가 반려동물의 잘못된 죽음으로 이어질 경우 두고두고 죄책감으로 남을 수 있다.

미국의 반려동물 전문가 안드레아 아덴은 동물을 키우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조언한다.

01. 동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평균10-15년) 헌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나?
02. 동물이 최고의 삶을 누리도록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할애할 수 있나?
03.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동물은 무엇일까?
04. 함께 살기 위한 준비가 안 된 동물을 데려와 훈련시킬 각오가 되어 있나?
05.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나? 또 함께 사는 사람이 동물을 데려오는 것에 동의했나?
06.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나?

출처 : 코스모폴리탄

은퇴 후 재취업 동향과 성공적인 취업 전략

은퇴 후 최대 관심은 바로 재취업. 하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과연 재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 희망과 동시에 현실 눈높이를 조정하고, 확실한 취업 목표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고령자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했을 때 퇴직자들은 은퇴 후에도 남은 20~30년의 고령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은 누구나 여유 있게 삶을 즐기고자 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 두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면, 퇴직 후 스스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재취업 기회를 갖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는 산업화 과정의 중심에서 현재의 고령세대 보다 더욱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들 세대는 현재의 고령자와는 달리 교육 및 경제적 혜택을 비교적 풍부하게 누린 세대로, 이들이 경험한 경제활동 경력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시대적 자산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 특성

지난 6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15 고용패널브리프' 조사¹⁾에 따르면 은퇴 후 6년 이내 한 번 이상 노동시장에 재취업한 비율은 17.2%로 나타났으며 재취업 이후 계속 근로 상태에 있는 경우

1) 분석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 1~4차(2006~2012년) 조사 자료

는 4.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은퇴 이후 재취업 비율은 낮은 편이며 또한 상당기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차수별 은퇴자 및 신규 재취업 비율을 살펴보면, 은퇴 후 재취업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어 은퇴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어려워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퇴 후 재취업 비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40대 40.4%, 50대 26.3%, 60대 16.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 구직활동 평균 기간은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길어지는 등 은퇴 후 재취업 성공 여부에 연령이 매우 큰 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재취업자들의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의 경우도 40~50대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재취업 시점의 연령에 따라 종사상 지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은퇴 후 재취업 시기에 연령이 높을수록 재취업 비율이 낮고, 종사상 지위가 불안해지는 확률이 높아지고, 은퇴 후 재취업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져 은퇴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은퇴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사 차수별 은퇴 및 신규 재취업 비율

(단위 : 명)

연도	은퇴자	은퇴비율	신규 재취업자	신규 재취업비율	합계
2006년 - 2008년	1,158	90.4%	123	9.6%	1,281
2008 - 2010년	1,085	93.7%	73	6.3%	1,158
2010 - 2012년	1,061	97.8%	24	2.2%	1,085
합계 (2006년 - 2012년)	1,061	82.8%	220	17.2%	1,281

주 : 2006년 당시 은퇴자 중 1~4차 기간 동안 은퇴여부에 모두 응답한 사람 n=1,281명 대상. 은퇴자는 연도별 추가 은퇴상태에 놓인 사람, 재취업자는 연도별 신규 재취업한 사람. 신규 재취업비율=신규 재취업자/(은퇴자+신규 재취업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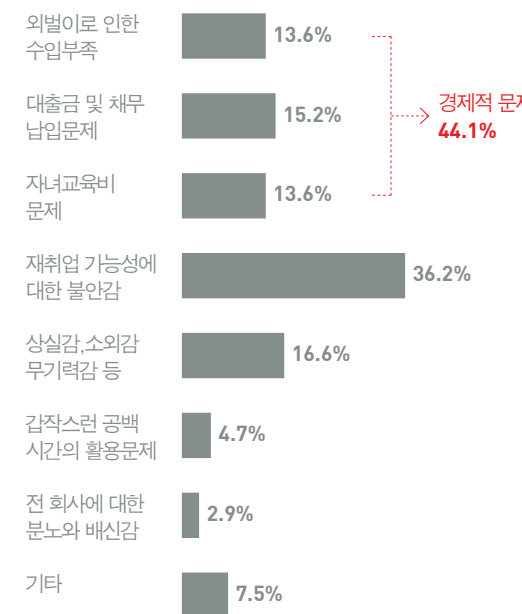
중장년 구직자들은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 희망과 동시에 현실 눈높이에 조정

지난 7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2015년 중장년의 재취업 인식조사'²⁾에 따르면 중장년 재취업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44.1% (수입부족, 대출금 등 채무, 자녀 교육비)로 가장 많이 꼽혔고, 뒤이어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상실·소외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들의 재취업 준비정도는 '준비하지 않았다'가 43.0%로 '준비했다' 33.4%에 비해 약 10%p 높게 나타나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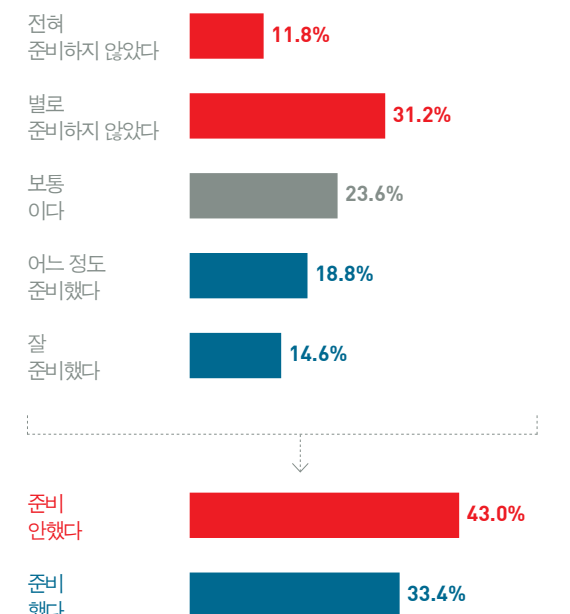
반에 가까운 중장년들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돌발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장년층 구직자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 재취업을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재취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직자들의 재취업 시 희망업무는 경영·사무가 34.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영업·무역 14.4%, 생산·제조 13.9%, 특수전문직 11.9%, 연구·개발 6.5%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퇴직 전 담당업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장년 구직자의 절반이 넘는 51.9%가 직급과 무관하게 재취업하겠다고 밝혀 종전 지위와 상관 없이 입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희망연봉 설문에는 퇴직 전 연봉의 80% 정도면 재취업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70%, 50%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직 전 연봉의 30% 이하라도 입사하겠다는 응답도 10.7%로 나타나 상당부분 눈높이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구직자의 스트레스 원인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중장년 퇴직이전 재취업 준비 정도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취업 목표를 확실히 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는 본인이 취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히 하여 업종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취업 후에도 본인의 선택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직업연구센터³⁾는 베이비부머가 퇴직 후에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이유에 근거하여 경제형, 취미형, 사회공헌형, 틈새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2) 분석대상: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중장년 재취업 인식조사' (2015.2016년 6월 8일 발표)

3) '베이비부머의 새로운 도전, 베이비부머 도전 가능 신규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연구센터(2015.9)

첫 번째로 경제형은 그간의 경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재취업이 가능한 직종으로,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일을 즐겨 하는 퇴직자들에게 적합한 유형이다. 앞서 중장년 구직자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보면 이에 해당하는 퇴직자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취미형으로 근무시간이 충분한 편이 아니어서 높은 수익을 얻기는 힘들지만 자신의 취미를 살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직종이다. 셋째는 사회공헌형으로 취미형과 유사하게 생계를 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사회에 공익을 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기인해 창업 욕구가 큰 베이비부머들은 그간의 경력이나 연륜, 경험을 살리면서도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직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여 결정한 이후에는 해당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은퇴 전 관련 직종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인지,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하기를 원하는 경우인지를 각각 나눠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구직활동 중임을 충분히 알리고, 자신의 경쟁력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의 경우에는 과거 회사생활을 통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재취업 관련 상황이 녹록치 않을 수 있으므로 재취업할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 등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가장 우선시 하는 사항을 고용안정성 확보라고 정했다면, 그 밖에 연봉이나 회사규모 등 일정 기준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단순한 이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각오하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 습득에 따른 비용은 물론 그동안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사회적으로도 은퇴 후 재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재취업과 창업, 전직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 대책을 내놓았고, 아울러 퇴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과 전직 등 퇴직 후 선순환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평생 현역을 위한 경력개발과 관리 지원을 위해 '생애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을 원할 경우에는 리더십 코칭과 함께 훈련비 등 경제적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재취업을 원하는 퇴직자들은 고용부 고용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수립한 재취업을 위한 액션플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재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생각,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와 함께하면 당신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입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행복한 멤버십과 만나보세요.



HANA MEMBERS 하나멤버스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저축부터 보험 가입, 카드 사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쌓인 하나머니와 제휴사 포인트를 합산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금융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되어 다양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보세요.

하나머니란?

연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하나멤버스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하나멤버스 가입 고객은 누구나 하나금융그룹금융 거래 및 일반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na Money 1 Click

어디서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도)
그냥 결제만 하고 (하나머니를 사용한다는 말 없이)
Cashier가 일반 결제 처리만 하면
하나멤버스 앱이 Push로 알려주니까
'사용하기'만 클릭하면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Push 팝업에서 하나머니 '사용하기' 클릭!

* 하나머니 잔액 천원 이상 & 매출금액의 20%까지 하나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로 적립해 편리하게 사용한다!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머니**

- 연금처럼 ATM출금도 자유롭게!
- 내 계좌로 입금도 안전하게!
- '보내요'와 '주세요'로 친구와 주고받기도 다정하게!
- 가맹점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 부족하면 내 계좌에서 충전도 빠르게!
-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여 한꺼번에!
- 교통카드 충전도 손쉽게!

쉽고 빠르게 하나멤버스에 가입하세요

모바일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완료!

step 1 > step 2 > step 3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Google play App Store

[주]KBE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사일 2015-광고-3078호(2015.09.24)

신흥국 경제에 드리운 세 가지 불안 요소



내년에도 신흥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미(美) 연준의 출구전략발(發) 충격 가능성,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성장률 둔화, 신흥국의 부채위기 등 신흥국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요소들을 살펴본다.

내년에도 구조적인 흐름으로

신흥국 경제의 부진이 계속될 전망

내년도 세계경제 역시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미국 통화 정상화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신흥국의 경우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둔화와 원자재 상품 가격 약세, 미(美) 통화긴축 움직임,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 이후 신흥국 경제는 중국의 WTO가입과 원자재 상품 가격 강세 등에 힘입어 세계 교역의 빠른 증가를 통해 세계경제를 견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흥국의 성장 모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선진국의 제조업 본국 회귀(Reshoring), 중국 등 신흥국 수출구조 고도화,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 교역 증가율이 둔화되고 글로벌 공급 사슬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경제의 교역탄성치(세계경제 성장률 대비)는 2000년의 2.4에서 2015년에는 1.3으로 급락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도 이로 인한 소비 확대 및 원가 감소 등의 수혜보다 디플레이션 압력 강화와 같은 부작용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원자재 수출 의존성이 큰 중동 및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흥국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흐름이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2016년 신흥국 경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불안요인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미국의 유동성 회수로 신흥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 배제 못해

첫 번째 불안요인은 미(美) 연준의 출구전략발(發) 충격 가능성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실물경제의 추락을 억제해왔다. 그 와중에 선진국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는 GDP대비 11%(2007년)에서 24%(2013년)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 중 많은 부분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왔다. 맥킨지는 2009년 5월 이후 1,732억 달러의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흥국은 이와 같은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내수를 키우고 기업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에 근접하면서 금리인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FOMC 참가자 대부분(17명 중 13명)이 연내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열린 연준 의장은 중국 등 신흥국 불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리 인상 계획을 고수중이다. 물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연준이 공세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유동성 공급과 제로금리 정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준이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불확실성이 매우 팽배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까지 시장의 관심이 금리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준의 방대한 자산 축소 차원에서의 만기도래 자산의 재투자 중단 결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내년에만 2,161억 달러, 2023년까지 1.72조 달러의 보유자산 만기가 도래하게 된다. 결국 미(美) 연준이 조심스럽게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신흥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률 둔화는

이미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두 번째 불안요인은 '이행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다. 최근 중국 증시의 급락과 위안화의 전격적인 평가절하 등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경기 둔화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정부주도 경제운용과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된 것이다. 중국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과 위안화 절하폭 등을 감안할 때 최근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과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모형 변화와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이미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존의 수출·투자위주 성장에서 내수·소비위주 성장의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경제의 변동성을 낮추는 대신에 필연적으로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의 변동성이 낮아진 반면 성장률이 하락한 경험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중국경제의 변동성이 낮아질 경우 정책당국은 과거에 비해 여유롭게 실물경제를 운용할 수 있고 경제주체들 역시 의사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동안 중국 경제의 높은 성장의 과실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기록해 온 관련국의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주변국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이 둔화되면서 경제성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중동 및 남미 등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도 중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이행기 과정에서 내부 불균형이 대형 금융위기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올림픽 개최 이후 성장둔화 과정에서의 대내외 충격과 금융자유화가 맞물리면서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만약 중국이 이와 같은 금융위기를 겪는다면 중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로존 재정위기에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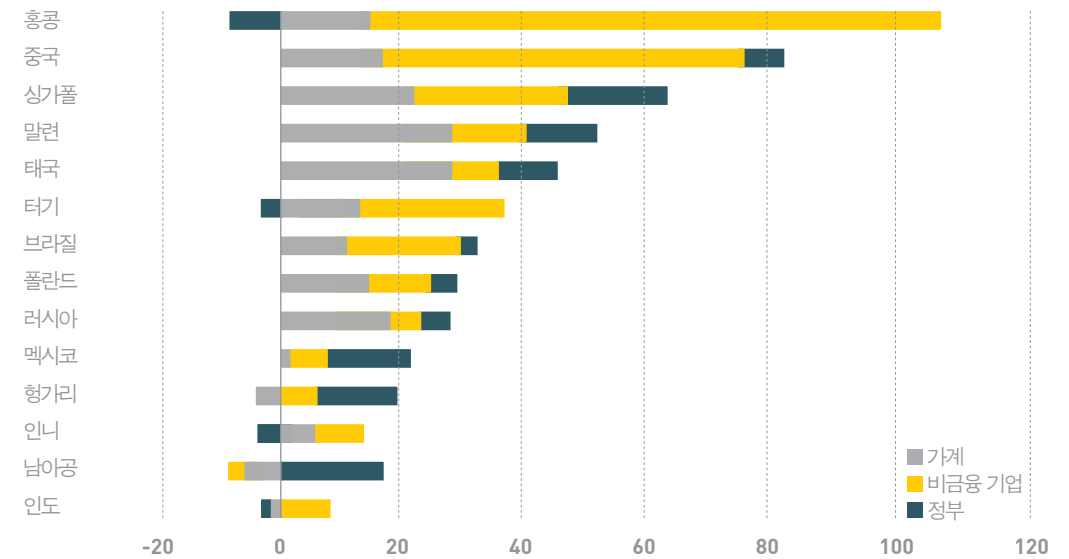
신흥국의 부채위기가 새로운 불안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세 번째 불안요인은 신흥국의 자체적인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에 이어 신흥국의 부채위기가 새로운 불안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은 부채감축(디레버리징) 기초를 보인 데 비해 신흥국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신흥국 부채는 기업부채 위주로 확대되고 있다. 2004년 4조 달러였던 신흥국 비금융기업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18조 달러로 네 배 이상 늘었다. 신흥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 역시 평균적으로 26%p 상승했다. 신흥국 기업들이 은행 대출보다 해외 회사채 발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민감해진 것도 부담스럽다. 신흥국의 전체 기업 부채 중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9%에서 지난해 말 17%로 8%p 상승했다.

발행회사 또는 발행국가의 신용상승이 아닌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의해 증가한 신흥국의 부채는 미(美) 연준의 금리인상 또는 달러화 강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동안 부채 의존적 성장으로 대내적인 금융 취약성이 높은 국가, 또는 내부 정정불안에 따른 정책대응 여력이 부족한 국가 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신흥시장의 부채급증

(GDP대비 비중의 변동분 : 2008~2014, % p) |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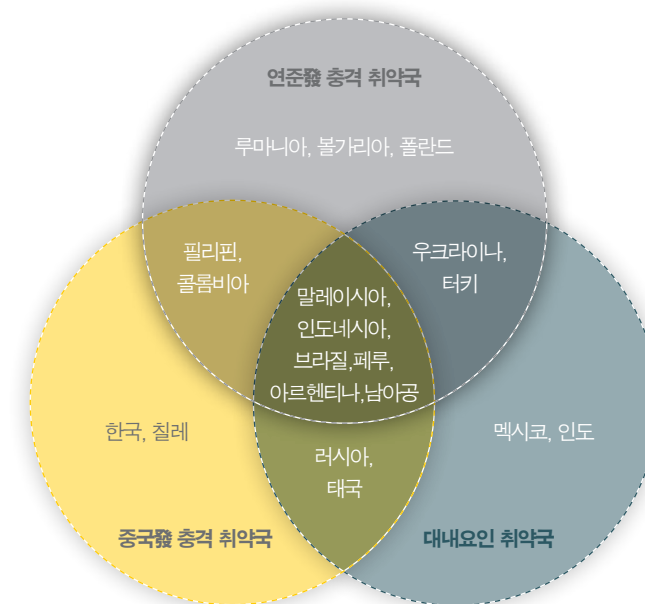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남아공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충격 유형에 따른 취약국을 점검한 결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남아공 등 6개국이 3대 불안요인에 모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위기의 전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美) 연준 충격과 신흥국 취약성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중국발(發) 충격에는 취약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중국의 성장모형 전환에 대비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관련된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충격 유형에 따른 취약 신흥국점검

자료 : IIF, Oxford Economic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5년 주택시장 동향 점검

2015년 주택시장은 거래량과 주택 가격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대출규제 완화로 올해 주택시장 상황은 뜨거웠다.

그렇다면 내년의 주택시장은 어떨까. 최근 분양물량 급증으로 후폭풍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올해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내년을 전망해본다.



2015년 주택시장은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

올해 주택시장은 거래량이나 매매가격 면에서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주택 거래가 살아나는데 비해 가격 상승률은 연간 2.1%에 불과해 거래량에 못 미치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 '질반의 성공'에 그쳤다면, 올해는 거래량과 주택 가격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 전 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015년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활황세(1~9월 월평균 거래량 기준)를 나타냈고,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은 4%를 넘어서 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2.7%, 2015년 2사분기)을 고려한 실질가격 기준으로도 뚜렷한 오름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연간 3.9%의 가격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2015년 9월 말)을 기록한 것은 2006년 이후 오랜 침체를 떨치고 본격적인 시장 회복세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대출규제 완화의 합작품

국내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고, 인구·가구 구조상 거주수요가 점차 감소하면서 추세적인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올해의 뜨거웠던 주택시장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유례없는 초저금리를 들 수 있다. 시중금리의 하락은 일차적으로 주택구입자의 이자비용을 낮춰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국내 주택시장에서의 저금리의 영향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양상이 더해지고 있는데, 다른 아닌 전세의 월세 혹은 반전세로의 전환이다. 전세 임대인들은 시중 예금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게 되었고, 수급불균형이 초래한 최악의 전세난은 전세가구의 자가 전환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LTV·DTI 규제완화가 더해지면서 실수요 주도의 시장 회복세가 더욱 본격화되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극적인 반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두드러진 지역임과 동시에 과거 주택금융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올해 주택시장에서의 저금리와 대출규제 완화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당장 내년 초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파장이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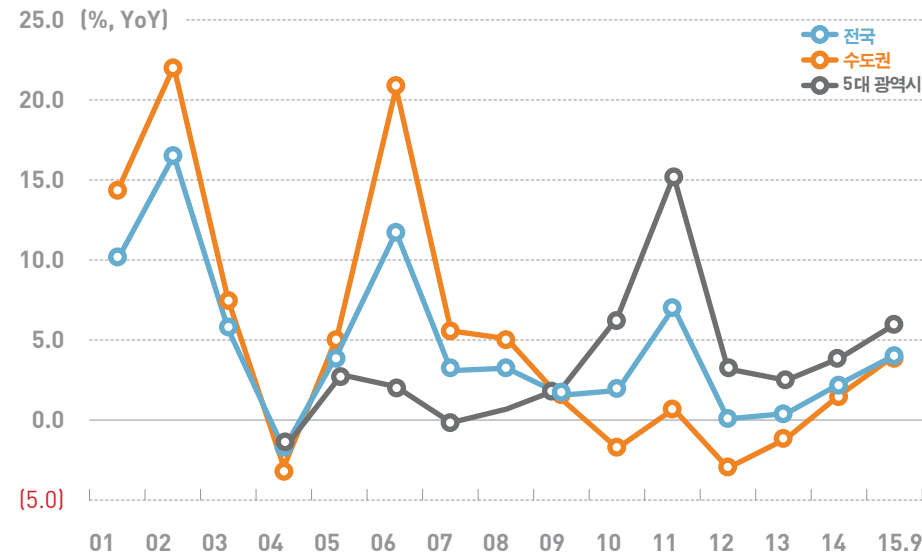
그러나 올 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시장의 열기는 어찌지 계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다. 지난해 LTV·DTI 규제완화와 더불어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내 가계의 차입규모는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이에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국내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힐 만큼 문제시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차입자의 상환능력 중심 심사로의 변화, 분

할상환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내년 1월 이후에는, 대출한도 축소뿐 아니라 분할상환 의무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차입자의 주택구입 여건이 불리해진다. 이미 예고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위축 효과는 덜하다고 해도, 동 대책 시행으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시점을 앞당겨 거래절벽이 나타나거나, 오히려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등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분양물량 급증에 따른
후폭풍 또한 주택시장의
적신호 요인

또 하나의 중요한 위험요인은 최근 분양물량이 급증한데 따른 후폭풍이다. 지난해부터 신규 분양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진 데다 올해 초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건설사들은 그간 미뤄왔던 신규 분양 물량을 쏟아내게 되었다. 그 결과 2014년 신규아파트 분양 물량은 33만호에 달하였고, 2015년에는 49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 이후 신규아파트 분양 물량이 추세적으로 감소한데다 연평균 분양 물량이 26만호(2000~13년)임을 감안하면 최근의 분양 물량 증가세는 거의 폭증에 가깝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맞는다는 점인데, 통상 주택 건설기간이 2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공급시차가 뚜렷하고, 현실적으로 수급조절이 어려운 주택시장 속성상 금년도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내년 이후 주택시장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 아닐까 싶다.

연도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YoY)



자료 : KB 국민은행

하나금융투자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올해부터 늘어난 퇴직연금 세제혜택!
하나금융투자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2015년 연말정산시 약9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4년
400만원



2015년
7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세제혜택 포인트

-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x 13.2%(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 퇴직금 및 추가납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수수료 * 가입 후 1년 정에서 10% 할인 적용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억 이하 0.20%	- 1억 이하 0.20%
- 1억 초과 0.175%	- 1억 초과 0.175%

가입조건 * 납입한도: 연간 1,200천 원 / 연금저축, DC/DB와 추가납입금 합산 기준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적용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RP 가입자
- 퇴직RP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갑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88-3111
www.hanaw.com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금융투자

스마트한 네덜란드 시니어

네덜란드 시니어들이 유행의 창조자로 나섰다.

스마트폰, 스카이프(skyp)로 소통하고, 게임으로 건강과 재미를 되찾는다. 혼자 외로울 땐

과감히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노년의 시기, 삶이 더 즐거워진

네덜란드의 시니어들. 스마트한 그들의 삶 속으로.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전체의 17.3%에 달한다. 매년 인구 증가율이 0.3~0.4%에 그쳐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인구 중에서도 8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더블 에이징(Double Aging)'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80세 이상 인구가 고령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 정도 된다.

현재 중년층을 형성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예상되고 있어, 고령화 속도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수는 2041년 약 470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인해 현재 4:1인 부양비율이 2040년 2:1로 떨어지고, 연금지급액은 현재 300억 유로에서 2040년 500억 유로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13년부터 노령연금(AOL: Algemene Ouderdomswet) 제도를 개혁해오고 있다.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은퇴 연령을 연장해 2018년 66세, 2021년 67세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한 네덜란드

시니어들의 홀로서기

네덜란드는 사실 2014년 노인 행복지수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니어들이 살기 좋은 나라 중의 하나다. 사회적 기반, 성숙한 시니어 생활 문화 덕분인지 네덜란드에는 독립적이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시니어들이 많다.

우선 네덜란드 시니어의 특징적인 모습은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노령 층에서 약 87%의 노인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네덜란드 시니어들이 홀로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의 안정성이 크게 작용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적용 범위가 전체 국민 100%에 달할 정도다. 실제로 노령연금으로 시니어들이 한 달 평균 약 1,034유로를 수령하고 있다.

환경조성 부문에서도 지역 대중교통이 이용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는 등 노인친화적인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마련되어 있다.

스마트 기기로 소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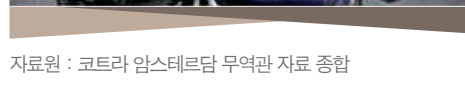
게임으로 재미 찾아

네덜란드 시니어들은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다. 노인의 30%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며, 15%는 스카이프(Skype) 등 온라인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감에 따라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다. 기본적인 주택 자동화 시스템의 기능은 시니어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덜란드 시니어들은 게임을 즐기며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얻기도 한다. 시니어들이 즐기는 게임은 기능성 게임 즉 체험형 게임으로 집에서 재활 및 건강 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게임기 실버피트(SilverFit)의 경우 게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운동기구로 뇌졸중, 골절 등의 재활치료에 이용된다. 특히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거나 상대방을 이기는 과정으로 주체적으로 재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퀵(Qwick)은 움직임을 이용한 게임으로 앉아서 퍼즐 맞추기, 다트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움직임 감지 센서를 통해 음악도 연주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한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50플러스매치(50plusmatch.nl)와 같은 시니어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는 독일, 노르웨이까지 진출할 정도다.



자료원 :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글로벌 하게 나눈다! 해외 봉사 활동

“인생의 전반부가 강요받는 것이었다면, 후반부는 선택하는 것이다.”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 떠나는 탁월한 선택, 해외봉사활동으로 삶의 만족감 Up.

의미 있는 인생 2막.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내가 쌓은 경험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는 해외봉사활동에 도전해보자.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봉사활동으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은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국제적 감각도 키울 수 있어 한층 더 다이내믹 하다. 무엇보다도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또 다른 삶의 만족감을 안겨준다.

물론 현지 언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불편을 겪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극복한다면 삶의 또 다른 에너지가 된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일반 봉사단원 또는 시니어 자문단으로 지원 가능하다.

참여 자격은?

일반 봉사단원 또는 시니어 자문단으로 참여할 경우 연령 제한은 만 50세 이상, 관련 기술과 경험을 10년 이상 쌓아야 지원 가능하다. 신체검사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시니어 자문단은 영어나 제2외국어 등 언어능력도 필요하다.

주요 활동 내용은?

주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개발도상국 현지인에게 전수하는 방식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일반 봉사의 경우 2년 동안 월 1,25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 생활비가 지급되며(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활동분야로는 일반 컴퓨터 교육, 한국어 교육, 지역개발, 기계 설비 등 다양하다. 시니어 자문단의 경우 월 4,000달러 생활비가 지급되며, 주로 경제, 경영, 건축, 토목 등 분야가 있다. 봉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3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주의 사항은?

봉사 단체에서 요구하는 역할, 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olunteer

Trust & Global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한 은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금융투자, 하나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카드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